축산업계 소식

농림수산부문 내년 예산 3조8천억원 확정
올해보다 1조원 늘어

정부와 민자당은 내년도 농림수산부문 예산을 올해보다 1조원 늘어난 3조8천7백억원으로 확정하였다.

또 향후 10년간을 '농어촌 구조혁신의 연대'로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투자재원 조달 방안의 제고적 장치로 1조1천19억원 규모의 농어촌구조개선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축산업 구조개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축산업 구조개선 투융자 규모를 올해의 2백18억원에서 2천2백86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당정간 협의를 갖고 92년도 농림수산부문 예산(안)을 올해에 비해 예산상으로는 약 9천억원이 증가된 3조4천3백억원, 정부 재정에서 부담하는 채권발행 증액까지를 합한 지원규모로는 약 1조원이 증액된 3조8천7백억원으로 최종 협의, 확정하였다.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민자당의 농어촌 발전기획단에서 마련한 농어촌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기본구상과 UR협상에 대응하여 농림수산부가 발표한 농어촌 구조개선대책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최종단계에서 당초 예산안 보다 4천억원을 추가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 공청회 개최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주최로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9월6일 축협중앙회 대강당에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원장 박정윤)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 강수기 경제분석실장의 "농수산물 가공산업 및 품질관리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김성훈(중앙대 산업대학장)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이 벌어졌는데 현행 농수산물 식품가공산업에 관한 허가 및 지도감독 업무 개선방안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었다.

즉 보사부는 가공생산 이후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위생점검을 보다 전문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되었으며 농림수산부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농어가 소득증대,

가공식품 가격의 안정, 식품 수입개방에 대응,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인 육성제도를 모색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품질관리는 공업표준화법에서 독립, 농림수산부에서 별도의 표시규격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다.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토론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석철(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개발연구실장) △김완배(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김용택(농협중앙회 가공사업부 차장) △김인상(롯데햄·우유 이사) △김진영(국회의원) △우윤옥(독농가 대표) △이계호(서울대 식품공학과 교수) △이병화(국제농업개발원 원장) △천석조(식공협회 부설 식품연구소 책임연구원)

농수산구조개선기금 5천3백억중
축산부문 2천억 확정

농축수산물 관세와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 부가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 농어촌발전기금중 농수산구조개선 계정에서 내년에 축산업 구조개선을 위해 약 2천억원을 약간 상회하는 자금이 투입된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내년 농수산업 구조개선 계정의 재원이 총5천3백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중 축산분야에 37%에 해당하는 2천억원 정도를 투입한다는 것이다.

한편 축산분야 구조개선에 지원되는 이 자금은 축산단지 조성과 계열화사업 및 기계화 촉진을 위해 사용된다.

축산관계인사 산업현장 시찰
가위연, UR대응 정보수집차

가축위생연구소(소장 박근식)는 9월 28일 농과계 대학교수와 축산관계인사를 초청, 당면한 농정시책 및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간담과 농업현장 시찰을 통하여 UR대응기술 정보수집과 기술개발 수요를 발굴,농촌진흥사업의 발전계기를 마련키로 하였다.

시찰현장으로는 종합양축장(경기, 안성) 무지개안성 시험농장, 자동처리양계장(충남, 연기) 금강농장, 유가공장(충남, 공주) 남양유업(주)공주공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찰인원은 약 30여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사료관리법개정안입법예고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 수입업도 등록토록

정부는 사료의 수급안정과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사료관리법의 일부를 개정키 위해 지난 9월7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사료관리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료의 정의를 단미사료, 배합사료, 첨가사료로 구분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함.

○사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료품질관리위원회를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배합사료 등 사료의 제조업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고, 수입업도 등록토록 하여 수입되는 사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코자 함.

○농림수산부장관은 사료를 검정하여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사료검정기관을 소속기관이나 축산발전, 사료의 수급조절 또는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금액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벌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이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으로 되어 있다.

'91상반기 종계장, 부화장 현황
산란업 동일, 육계업 9% 감소

농림수산부가 집계한 6월말 '91축산업 허가·등록업체 현황에 의하면 육계업 등록은 전년 12월보다 9%가 감소, 산란계는 동일수준이었으며, 종계업은 7%가 증가하였다.

허가업인 부화업은 243개소에서 247개소로 증가 2%가 늘어났다.

'91 상반기 축산업 및 종축업 등록·허가 현황

	'90.12		'91. 6		비율(B/A)
	업체수(A)	사 육 수	업체수(B)	사 육 수	
					%
양돈업 허가	27	(모돈) 18,207	27	16,522	100
양돈업 등록	392	(모돈) 68,762	396	69,219	101
육계업 등록	273	(천수) 2,452	249	2,440	91
산란업 등록	108	5,080	108	4,813	100
산란용중병아리 등록	8	541	6	645	75
종돈업 등록	125	(두) 19,735	117	20,877	94
종계업 등록	239	(천수) 산란 627 / 육용 1,907	255	산란 524 / 육용 2,033	107
부화업 허가	243	(발육기능력) 43,788	247	48,354	102

"지금은…

수많은 주방용기들이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에서
특별히 맛갈스럽고 정성이 담긴 음식을 오래도록
식지 않고 음식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따로
귀하게 쓰이는 뚝배기처럼,
오라신은 자금도 그 효과가 더욱 돋보입니다.

양계장의 상비약
오 라 신

연구하는 양축가의 동반자
주식회사 과학축산
수신자부담 전화서비스 080-023-2361